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이 문규

- 차례 -

- | | |
|---------------------------|------------------|
| 1. 머리말 | 성조 현상의 본질 |
| 2. 울진 방언 {안+용언}의
성조 자료 | 4. 대구 방언의 고조화 규칙 |
| 3. 울진 방언 {안+용언}의 | 5. 맺음말 |

〈버리〉

이 글은 경북 방언에서 두 가지 유형으로 실현되는 {안+용언}의 성조 현상을 분석하여 그 본질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쓰여졌다. 울진 방언에서는 용언의 활용형에 따라 '안해'([HL])형과 '안해'([LH])형이 상보적으로 실현되는 데 비해, 대구 방언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안해'([LH])형만이 실현된다. 성조의 표면형만을 가지고 자료를 검토할 때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 현상의 본질은 성조 현상을 몇 개의 층위로 나누어 접근하는 이론에 의해 밝혀질 수 있었다.

울진 방언에서는 고조인 '안'에 첫 음절 성조가 고조인 용언이 연결되면 '안해'([LH])형이, 첫 음절 성조가 저조나 고장조인 용언이 연결되면 '안해'([HL])형이 실현되는 것으로 규칙화할 수 있는데 이는 아주 자연스럽고 규칙적인 성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용언의 성조에 관계없이 항상 '안해'([LH])형만이 나타나는 대구 방언에서는 울진 방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조화 규칙을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인 성조 연결에서 나타나는 고조화와는 별개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고조화로 말미암아, 대구 방언에서 {안+용언}형은 항상 성조형 /H₂(L)/을 가지게 되고 이는 다시 음조 규칙에 의해 '[L₁H(L)]'로 실현되는 것이다.

{안+용언}의 성조 현상은 경북 방언의 방언 구획을 위한 중요한 기준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각 하위 방언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해 지역별 분포 관계가 정밀하게 고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한글 학회 대구 지회 제138차 논문 발표회(1997. 3. 8)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다듬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조언을 해 주신 대구교대 김 성환 교수님과 영남대 김 주원 교수님 등 한글 학회 대구 지회의 여러 회원님께 감사드린다.

1. 머리말

1.1. 경북 방언에서 부정사 ‘안’과 용언의 연결형, 즉 {안X}¹⁾의 성조는 지역에 따라 두 종류로 실현된다.

- (1) ㄱ. (나는 공부를) 안해[LH]
 (그 아이가 공을) 안차더라[LLHL]
 (나는 거기) 안갔어요[LLHL]
 ㄴ. (나는 공부를) 안해[HL]
 (그 아이가 공을) 안차더라[HLLL]
 (나는 거기) 안갔어요[HLLL]

(1)의 ㄱ과 같은 성조형²⁾은 대구, 달성, 군위, 성주, 영천, 고령 등 경북의 남부 지역어들에서 나타나고, ㄴ과 같은 성조형은 안동, 영양, 영주, 예천 등 북부 지역과 울진, 영덕, 영일 등 동해안 지역어에서 나타난다.

경북 방언의 성조 연구에서 이 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많지 않다. 대구 방언과 안동 방언의 부정사 ‘못’과 ‘안’의 성조 자료를 비교한 것으로 大江孝男(1978)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대구 방언과 안동 방언에서 {안X}의 성조가 다르게 실현되는 것을 관찰하고 비교적 많은 자료를 매우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

김영만(1986: 41~43)에서는 Ramsey 교수의 액센트 추이 가설을 반박하는 자료로 이 현상을 들고 있는데, ‘안간다’[LHL], ‘안갔다’[LHL] 등은 액센트 핵이 뒤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준 것으로 보았다.

1) {안+용언}을 간략화하여 이렇게 표기하고자 한다.

2) 아래에서는 편의상 (1)ㄱ형을 ‘안해([LH])’형으로, ㄴ형을 ‘안해([HL])’형으로 부를 것이다.

그 밖에 김 성환(1991)에서 경북의 북동 지역어(봉화, 영주, 안동, 영양, 울진, 영덕, 포항)가 “어절이나 단어의 음조에 있어서 대체로 첫 음절이 높고 강하게 발음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여기에 ‘안’의 성조 현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 (2) ㄱ. 까마구(HLL), 사과(HL), 옴마(HL)
- ㄴ. 어데서(HLL), 뭐할라고(HLLL), 왜왔노(HLL)
- ㄷ. 안간다(HLL), 안왔다(HLL)

이 논문의 목적은 동일 어형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성조형이 도출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혀 설명하는 데 있다. 편의상 (1)ㄱ류 성조형을 대표하는 방언으로 대구 방언을, ㄴ류 성조형을 대표하는 방언을 울진 방언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³⁾

아래 1.2.에서는 대구 방언과 울진 방언의 성조소와 그 표기에 관해 간단히 언급할 것이다.

2장에서는 울진 방언의 {안X}의 자료를 용언의 성조형에 따라 제시할 것인데, 울진 방언의 것만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뒤에서 밝힐 것이다.

3) 경북 방언의 하위 방언들 중 대구 방언과 울진 방언이 {안X}의 두 성조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여기서 이들을 주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성조에 관한 한 이 두 방언이 잘·양 면에서 매우 우수한 자료(김 차균 1993ㄴ, 1993ㄷ, 1994ㄴ, 1994ㄷ, 1997ㄴ 등)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개별 성조 현상을 분석하는 데에는 그 현상에 관련된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대상 방언의 종합적인 성조 자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대구 방언과 울진 방언의 경우, 현재 경북의 하위 방언들 가운데 가장 종합적이고 질이 좋은 성조 자료가 조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성조 체계나 중요한 성조 현상들이 각 방언 단독으로 혹은 타 방언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되어 있어 성조 연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봐 주셨을 뿐 아니라 성조에 대해서 문의한이었던 필자에게 자료 수집·처리에서부터 이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아울러 이 논문의 초고를 읽고 소중한 조언을 해 주신 김 차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이 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밝히고자 한다. 성조 현상을 몇 개의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론을 따를 때, 표면상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올진 방언 {안X}의 성조 현상은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한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어 성조론에서 모든 방언의 성조 체계와 성조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도록 잘 확립된 성조 이론이 소개될 것이다.

4장에서는 올진 방언의 자연스러운 성조 유형 도출에 대해, 대구 방언에서 '안해[LH]'형만이 실현되는 원인에 대해 고찰한다. '안해[HL]'형이 나타날 조건에서 대구 방언이 '안해[LH]'형을 실현시키는 것은 {안X}형에 '고조화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끝으로 5장에서는 본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안X}의 성조 현상이 가지는 성조론적, 방언론적 의의를 밝힐 것이다.

1.2. 성조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성조 언어의 성조소나 성조형 등 고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 여기서는 논의 전개의 편의를 위해 성조소와 표기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밝히고자 한다. 먼저 성조소에 대해서는,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경북 방언에서 세 개의 성조소를 인정하되, 대구 방언에 대해서는 '고조(H)/저조(L)/상승조(R)'를, 올진 방언에 대해서는 '고조(H)/저조(L)/고장조(H)'를 인정하고자 한다. 대구 방언의 경우, 위의 세 성조소에 의한 최소 변별쌍으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3) 말(馬, [H]) : 말(斗, [L]) : 말(語, [R])
배(梨, [H]) : 배(腹/船, [L]), 배(倍, [R])
손(客, [H]) : 손(手, [L]) : 손(孫, [R])

주지하다시피 15세기 국어에 있어서는 훈민정음의 설명과 방점

표기의 종류를 그대로 성조소로 인정하는 견해와, 상성을 평성과 거성의 병치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 왔다. 전자에 의하면 15세기 국어의 성조소는 저조, 상승조, 고조의 셋을 인정해야 하고, 후자에 의하면 저조와 고조의 둘만을 인정하게 된다.

경남 방언에 있어서는 허 웅(1955) 이래로 ‘고조, 중조, 저조’의 세 성조소를 인정하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고, 함경 방언의 경우에는 고조와 저조의 두 성조소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북 방언의 경우 고조와 저조 외에, 15세기 국어의 상성에 대응하는 성조소가 첫 음절에서 장음으로 실현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음성 실현은 하위 방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 방언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첫 음절의 장음을 저장조⁴⁾, 두 저조의 복합 등으로 처리하기도 했으나 필자의 직관적 관찰에 의하면 그 상승조가 뚜렷이 느껴질 뿐 아니라, 실제 음성 분석기에 의한 실험에서 장음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의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 등⁵⁾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15세기 국어와 같은 상승조로 처리하고자 한다.

15세기 국어의 상성조에 대응하는 성조소의 실현 양상은 대구 방언과 울진 방언에서 차이를 보인다. 대구 방언에서는 첫 음절이 상승조로, 둘째 음절이 고조로, 세 번째 이하 음절에서는 저조로 실현되는 데 비해, 울진 방언에서는 첫 음절이 거의 고장조로 실현되면서 끝 부분이 살짝 올라가고, 두 번째 이하 음절은 모두 저조로 실현되는 것이다.⁶⁾

4) 이 문규(1997)에서도 선행 연구를 따라, 이를 ‘저장조’로 잡고 성조 현상을 분석한 바 있다.

5) 이 점에 대해서는 김 주원(1995 : 21) 참조.

6) 김 차균(1997c)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상성에 대응하는 성조소가 울진 방언에서 고장조로 변했고, 원래의 상성은 일부 일음절 용언의 활용형에만 남아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강원도 삼척 방언의 조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이 발

(4) ㄱ. 새[R], 사람[RH], 사마귀[RHL](대구)

1. 새[H], 사람[HL], 사마귀[HL](울진)

따라서 울진 방언에서는 대구 방언의 상승조에 대응하는 성조소를 고장조로 잡되 그 표기는 'H'로 하고자 한다. 이제 각 성조 방언간의 대응 관계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⁷⁾

(5)

성조 이름	중세 국어	울진방언	통정방언	창원방언	대구방언
평성	가장 낮은 음조 /L/	고 /H/	저 /L/	고 /H/	고 /H/
추성	거성 가장 높은 음조 /H/	저 /L/	고 /H/	중 /M/	저 /L/
	상성 높아 가는 음조 /R/	고: /H/		저 /L/	상승 /R/

다음으로, 각 성조소의 표기는 위에서 보인 대로 저조는 'L', 고조는 'H', 상승조는 'R', 고장조는 'H'로 표기할 것이다. 경북 방언의 저조는 그 음성 실현에 있어 경남 방언의 중조와 같은 것이지만, 이 논문이 경북 방언의 성조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X}가 실현하는 두 성조형의 특징을 더 명확하게 보여 주는 데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M' 대신 'L'을 사용하기로 한다는 점을 밝혀 둔다. 그 외의 경북 방언의 성조 기술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김 주원(1994) 등 연구사를 정리한 선행 업적들로 돌린다.

2. 울진 방언 {안+용언}의 성조 자료

대구 방언에서는 {안X}가 용언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한 성조형

견되었는데, 방언 성조 연구와 국어 성조사의 기술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5)의 표는 김 차균(1997c: 116)에서 제시된 것을 가져와서, 표기법의 일부를 이 논문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한 것이다.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⁸⁾ 이 문구

즉 ‘안해[LH]’형으로 실현되는 데 비해 울진 방언에서는 용언에 따라 ‘안해[LH]’형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해[HL]’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다음은 울진 방언에서 대구 방언과 마찬가지로 ‘안해[LH]’형이 실현되는 예들이다.

(6) 안먹어[LHL], 안먹으이[LHLL], 안먹고[LHL], 안먹더라[LLHL], 안 먹었어요[LHLLL]

더욱이 하나의 용언이 그 활용형에 따라 ‘안해[LH]’형으로 실현되기도 하고 ‘안해[HL]’형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7) 안개[HL], 안가더라[HLLL], 안갔어요[HLLL] // 안가이[LHL], 안가고[LHL]

여기서 우리는, 울진 방언에서 {안X}의 성조형이 실현되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경북 방언 {안X}의 성조 현상을 밝히는 지름길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울진 방언 {안X}의 성조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북 방언에서 용언 어간의 성조는 그 활용형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연결되는 어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성조를 유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미에 따라 성조가 변하는 것도 있다. 아래에서는 일음절 어간 용언을 그 성조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나누고,⁸⁾ 각 부류의 {안X}형이 실현하는 성조형을 제시해 보기로 한다.

2.1. 첫 번째 부류의 용언은 첫 두 음절의 높이가 같고 세 번째 음절부터 저조로 실현되는 것들이다. 다음에서 보듯이 이 부류의 용

8) 용언 어간의 성조가 활용형에 따라 변동하는 데에는 일정한 유형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유형화한 것은 허 웅(1955)인데, 이후 이 방법은 용언의 성조 자료 분석에 이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더 정밀한 분류 체계를 갖춘 김 차균(1994- 등)을 따르되 용언의 성조 유형을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고찰은 생략하기로 한다.

한글 238('97. 12.)

언들은 모든 활용형에서 동일한 음조형⁹⁾을 가지는 것들로 김 영만(1972 등)의 'V형', 김 차균(1985 등)의 '거성형', 김 주원(1995 등)의 'I 형'에 해당한다.

- (8) 차다(蹴): 차고[HH/LL], 차이[HH/LL], 차더라[HHL], 차서[HH/LL],
찼다[HH/LL], 찼어요[HHL], 찰는겠다[HHL]

'차다'와 같은 성조형을 가지는 용언을 우선 'I 류 용언'으로 불러 둔다. I 류 용언에는 '뜯다, 깔다, 끄다, 타다, 팔다, 빨다, 춥다, 싫다, 옳다, ...' 등이 있다. 올진 방언에서 I 류 용언들의 {안X}형은 항상 '안해[HL]'형으로 실현된다.

- (9) 안차[HL], 안차고[HLL], 안차이[HLL], 안차더라[HLLL], 안차서[HLL], 안찼다[HLL], 안찼어요[HLLL], 안찰나[HLL]

2.2. 두 번째 부류의 용언은 그 활용형의 성조가 하나의 고조를 가지는 것으로, 김 영만(1972 등)의 'O형', 김 차균(1985 등)의 '평측형', 김 주원(1995 등)의 'O형'에 해당한다.

- (10) 잡다: 잡고[HL], 잡으이[HLL], 잡더라[LHL], 잡어서[HLL], 잡었다[HLL], 잡는겠다[LHLL]

'잡다'와 같은 성조형을 가지는 용언들에는 '값다, 벗다, 사다, 식다, 읽다, 입다, 놓다, 볶다, 곧다, 맑다, 밟다, ...' 등이 있다. 이들을 'II 류 용언'으로 불러 둔다. 올진 방언에 있어 II 류 용언의 {안X}형의 성조형은 대구 방언과 같이 '안해[LH]'형이다.

- (11) 안잡어[LHL], 안잡고[LHL], 안잡으이[LHLL], 안잡더라[LLHL], 안잡었다[LHLL]

9) 여기서 '음조형'은 표면 성조형을 말한다. '성조형', '음조형'의 구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이 문규

2.3. 세 번째 부류의 용언은, 그 활용형의 음조형이 단일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들은 다시 세부적인 차이에 의해 몇 가지로 나누어진 다. 이들을 Ⅲ-1류, Ⅲ-2류, Ⅲ-3류 등으로 부를 것이다. 먼저 Ⅲ-1류는 일부 활용형(12ㄱ)에서는 ‘잡다’와 같은 음조형이, 나머지 다른 활용형에서는 ‘차다’(12ㄴ)와 같은 음조형으로 실현되는 예들이다.

(12) 가다

- ㄱ. 가고[HL], 가이[HL], 가머[HL], 가이겨내[HLLL]
- ㄴ. 가더라[HHL], 가서[HH], 갔다[HH], 갔는겠다[HHL]

‘가다, 쓰다, 오다, 자다’ 등 주로 모음으로 끝나는 1음절 어간 용언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울진 방언에서 이 부류 용언들의 {안X}형의 성조는, ㄱ류는 ‘안해[LH]’형으로, ㄴ류는 ‘안해[HL]’형으로 나타난다.

(13) ㄱ. 안가고[LHL], 안가이[LHL], 안가머[LHL]

- ㄴ. 안가더라[HLLL], 안가서[HLL], 안갔다[HLL], 안갔는겠다[HLLLL]

Ⅲ-2류는 Ⅲ-1류와 거의 같은데 다만 일부 활용형의 음조형에 차이가 있는 것들로, 이 부류에는 ‘사다, 서다, 지다’ 등이 있다.

(14) 사다

- ㄱ. 사고[HL], 사이[HL], 사더라[LHL]
- ㄴ. 사서[HH], 샀다[HH], 샀는겠다[HHL]

‘사더라’가 ‘[HHL]’가 아닌 ‘[LHL]’로 실현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 부류도 {안X}형의 성조는 울진 방언에서 ㄱ류는 ‘안해[LH]’형으로, ㄴ류는 ‘안해[HL]’형으로 나타난다.

(15) ㄱ. 안사고[LHL], 안사이[LHL], 안사더라[LLHL]

- ㄴ. 안사서[HLL], 안샀다[HLL], 안샀는겠다[HLLLL]

III-3류는 일부 활용형에서 첫 음절이 고장조로 실현되는 것들인데, 여기에는 ‘누다, 두다, 보다, 주다, 하다’ 등이 있다.

- (16) ㄱ. 하^고[HL], 하^이[HL], 하^나[HL]
 나. 하^더라[HHL], 하^{나?}[HH]
 다. 해[:]서[HL], 했[:]다[HL], 했[:]는[?]겠^다[HLLL]

울진 방언에서 {안X}형의 성조가 ㄱ은 ‘안해[LH]’형으로, 나, 다은 ‘안해[HL]’형으로 실현된다.

- (17) ㄱ. 안하^고[LHL], 안하^이[LHL], 안하^나[LHL]
 나. 안하^더라[HLLL], 안하^{나?}[HLL]
 다. 안해[:]서[HLL], 안했[:]어요[HLLL], 안했[:]는[?]겠^다[HLLLL]

2.4. 네 번째 부류의 용언은 어간의 첫 음절이 모든 활용형에서 고장조로 실현되는 것들인데 15세기 국어의 상성형에 대응하고, 김영만(1972 등)의 ‘W형’, 김 차균(1985 등)의 ‘상성형’, 김 주원(1995 등)의 ‘II형’에 해당한다. ‘곱다, 얻다, 작다, ...’ 등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이들은 ‘IV류 용언’으로 부를 것이다.

- (18) 곱[:]고[HL], 곱[:]브이[HLL], 곱[:]더[?]라[HLL], 곱[:]바[?]서[HLL],
 곱[:]봤^다[HLL]

울진 방언에서 IV류 용언들의 {안X}형의 성조형은 모든 활용형에서 ‘안해[HL]’형으로 나타난다.

- (19) 안곱^고[HLL], 안곱^{브이}[HLLL], 안곱^더라[HLLL], 안곱^바서[HLLL],
 안곱^봤다[HLLL]

2.5. 다섯 번째 부류는 일부 활용형에서 고장조가 실현되고 나머지 활용형에서는 하나의 고조가 나타나는 형인데, 여기에는 ‘덜다, 돌다, 밀다, 웃다, 불다, ...’ 등이 속한다. 이들을 ‘V류 용언’으로 부르겠다.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이 문규

(20) 답다

ㄱ. 답:고[HL], 답:더라[HL], 답네[HL], 답나?[HL]

ㄴ. 더브이[HLL], 더버서[HLL], 더뵈다[HLL]

울진 방언에서 이들의 {안X}형의 성조는 (20)ㄱ류는 ‘안해[HL]’형으로, ㄴ류는 ‘안해[LH]’형으로 나타난다.

(21) ㄱ. 안답고[HLL], 안답더라[HLLL], 안답네[HLL], 안답나?[HLL]

ㄴ. 안더브이[LHLL], 안더버서[LHLL], 안더뵈다[LHLL]

3. 울진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의 본질

3.1. 성조 현상의 층위

2장에서 울진 방언 {안X}의 성조 자료를 용언의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자료 검토의 결과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IV, V류에서 고장조로 시작하는 형에 ‘안’이 앞서면 반드시 ‘안해[HL]’형이 나타난다는 점 외에는 특별한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I류, II류, III류의 경우 겉으로 보아서는 어떤 원리가 있어 보이지 않고, IV, V류의 경우에도 고장조가 실현되는 형에서 ‘안해[HL]’형이 실현되는 원인을 찾기도 어렵다.

{안X}의 성조 현상이 이렇게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표면 음조형만을 가지고 이 현상을 보았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실현되는 음성형만을 가지고서는 성조 현상의 본질을 찾을 수 없으며, 원래의 성조 즉 음운론적 상태의 성조 단계와 환경에 따라 바뀌어 실현되는 음성적인 성조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론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울진 방언의 자료를 보자.

(22) ㄱ. 잡고[HL], 잡으이[HLL], 잡으며[HLL], 잡으이끄내[HLLLL],
잡더라[LHL], 잡어서[HLL], 잡었다[HLL], 잡는졌다[LHLL]

ㄴ. 꽃[H], 집[H]// 꽃집[LH], 집밖[LH]

(22) ㄱ에서 어간 '잡-'의 성조는 그 활용형에 따라 '[H]', '[L]'의 두 가지로 나타나고, ㄴ의 '꽃'과 '집'의 성조 역시 '[H]'와 '[L]'의 둘로 나타난다. 여기서 표면적인 고저만을 중시하여 어간 '잡-'과 명사 '꽃'의 성조를 둘로 잡는 것은 성조 현상의 본질적인 측면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이와 같은 성조의 변동은 기저 성조에 어떤 규칙이 적용되어 그 표면적인 모습만을 바꾼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음운론에서 일반화된 음운 변동의 원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22)에서 '잡더라'의 '잡-'과 '꽃집'의 '꽃'이 저조로 실현되는 것은 뒤따르는 고조 앞에서 저조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기저 성조는 여전히 고조로 봐야 하는 것이다.

(22)와 같은 성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조 기술의 층위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동기에 의해 정밀하게 체계화된 성조 기술의 방법론을 우리는 김 차균(1977~1997 등) 님의 일련의 업적에서 찾을 수 있다.

김 차균(1988)에 의하면 성조는 모두 세 가지 층위를 가진다. 첫 번째 층위는 각각의 형태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조형으로, 일반 음운론의 형태 음소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기저 성조 표상'이라고 부른다. 다음으로 각 형태의 성조 즉 기저 성조 표상이 배합되면서 어절과 같은 언어 단위¹⁰⁾의 성조형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단계를 '최종 성조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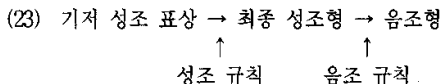
'기저 성조 표상'으로부터 '최종 성조형'이 도출되는 과정은 국어의 모든 성조 언어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성조 연결상의 중요한 제약이 적용되는 과정이다. '기저 성조 표상'에서 '최종 성조형'을 도출하는 데 소용되는 이러한 원칙은 '성조 규칙'이라고 불리는 일련

10) 이 문규(1997)에서는 이 단위를 '성조 어절'로 부른 바 있다.

의 중화 규칙으로 표현된다.

‘최종 성조형’은 다시 각 성조 언어가 가지는 특유의 ‘음조 규칙’에 의해 표면 음성형으로 실현된다. 중세 국어를 비롯한 각 방언들의 성조 실현의 차이는 이 음조 규칙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조의 표면 음성형을 ‘음조형’으로 부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성조 표상은 ‘기저 성조 표상’, ‘최종 성조형’, ‘음조형’의 세 층위로 존재하는데 그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제 이 논문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구 방언과 울진 방언의 성조 규칙과 음조 규칙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자.¹¹⁾ 편의상 음조 규칙부터 살펴볼 것이다.

(24) 대구 방언과 울진 방언의 음조 규칙

ㄱ. $R_0 \rightarrow RHL_0/\# _____\#$ (대구)¹²⁾

$\dot{H}_2 \rightarrow \dot{H}L_1/\# _____\#$ (울진)

ㄴ. $L_2 \rightarrow HHL_0/\# _____\#$

(단, L^2 는 정보 초점이 아니면 [LL]으로 발음된다.)

ㄷ. $H_2L^n \rightarrow L_1HL^n/\# _____\#$

(24)의 ㄱ은 대구 방언에서 상승조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절이 제1음절 상승조, 제2음절 고조에 이어 3음절 이하는 모두 저조로

11) 이 논문은 김 차균(1977~1997)의 성조 이론을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의 분석에 적용해 보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 이론 자체의 내용을 깊이있게 논의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소개하는 데 그치고, 이론의 자세한 내용은 뒤의 참고 문헌으로 대신한다.

12) 규칙 표기에 사용된 아래첨자는 그 숫자 이상의 음절 수를 나타내고, 위첨자는 그 숫자만큼의 음절 수를 나타낸 것이며, 위첨자 n은 임의의 숫자를 표시한다.

실현된다는 사실을, 울진 방언에서는 고장조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절이 1음절 고장조, 2음절 이하는 모두 저조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규칙화하고 있다. ㄴ은 저조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어절은 첫 두 음절이 고조로, 나머지 3음절 이하는 모두 저조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규칙화하고 있다. ㄷ은 2개 이상의 고조가 어두에서 연결되면 마지막의 것을 제외한 모든 고조가 저조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규칙화하고 있다. 대구 방언의 실제 어휘례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¹³⁾

(25) ㄱ. 어휘	성조형	음조형
말(語)	/R/(Ĥ/)	[R](Ĥ)
사람	/R ² /(Ĥ ² /)	[RH](ĤL)
거머리	/R ³ /(Ĥ ³ /)	[RHL](ĤLL)
굴비이절음	/R ⁵ /(Ĥ ⁵ /)	[RHLLL](ĤLLLL)
ㄴ. 말(斗)	/L/	[L]
구름	/L ² /	[HH]/[LL]
무지개	/L ³ /	[HHL]
무지개색	/L ⁴ /	[HLLL]
ㄷ. 말(馬)	/H/	[H]
아들	/HL/	[HL]
바람	/HH/	[LH]
미느리	/HLL/	[HLL]
까마구	/HHL/	[LHL]
사다리	/HHH/	[LLH]
고슴도치	/HHHL/	[LLHL]

다음으로, 성조 규칙은 2개 이상의 형태가 연결되어 하나의 성조 단위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일종의 성조 배열상의 제약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성조 규칙은 다음과 같은 저조화 중화 규칙이다.

13) ()은 울진 방언의 자료이다.

(26) 경북 방언의 성조 규칙 : 저조화 중화 규칙¹⁴⁾

ㄱ. 고조 다음에서 상승조(올진 방언은 '고장조')와 저조는 저조로 중화된다.

ㄴ. 한 어절 안에서 저조나 상승조(올진 방언은 '고장조') 다음의 모든 성조는 저조로 중화된다.

ㄱ은 중부 방언에서 음장이 제2음절 이하에서 유지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고, ㄴ은 하나의 음절에서 상승조나 저조가 나타나는 음절이 밝혀지면 전체 어절의 음조형이 예상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조 다음에서는 상승조(혹은 고장조)와 저조가, 저조 다음에서는 모든 성조가 저조로 바뀌므로 이 성조 규칙을 '저조화 중화 규칙'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대구 방언의 자료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27) ㄱ. 새복/HH/ + 밥/L/ → 새복밥/HH/[LHL]

새복/HH/ + 구름/LL/ → 새복구름/HHLL/[LHLL]

새복/HH/ + 까치/R²/ → 새복까치/HHLL/[LHLL]

ㄴ. 겨울/HL/ + 꽃/H/ → 겨울꽃/HLL/[HLL]

겨울/HL/ + 풀/L/ → 겨울풀/HLL/[HLL]

겨울/HL/ + 새/R/ → 겨울새/HLL/[HLL]

ㄷ. 말/R/ + 실수/LL/ → 말실수/R³/[RHL]

말/R/ + 꼬리/HL/ → 말꼬리/R³/[RHL]

말/R/ + 다툼/HH/ → 말다툼/R³/[RHL]

말/R/ + 대꾸/R²/ → 말대꾸/R³/[RHL]

먼저 (27)ㄱ의 '새복'(새벽)은 [LH]로만 실현되지만 이 음조형은 기저 'HH/'로부터 위 음조 규칙 (24)에 의해 도출된 것이다. '새

14) 김 차균(1993ㄴ 등)에서는 국어 방언의 성조를 평성과 측성(상성과 거성)으로 2분하고 성조의 중화를 측성의 실현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을 따르면 중세 국어와 현대 각 성조 방언들이 공히 가지는 성조 중화의 원리와 규칙이 간명하게 설명되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편의상 성조 규칙의 내용을 (26)과 같이 표현하기로 한다.

복' 다음에서는 저조 1음절어('밥')나 저조 2음절어('구름'), 고장조 2음절어('까치')가 모두 같은 음조로 실현된다. 이는 '새복'의 제2음절 고조 다음에서 저조와 고장조가 중화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새복' 다음에 저조나 고장조로 시작하는 어휘가 와서 복합어가 형성될 때 그 성조는 음절 수에 관계없이 '/HHL_L/'을 이루게 된다. 이 '/HHL_L/'는 다시 음조 규칙 (24)ㄷ의 적용을 받아 '[LHL_L]'로 실현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27)ㄴ은 '/HL/' 다음에서 모든 성조형이 중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ㄷ은 상승조 다음에서 모든 성조형이 중화되어 역시 일정한 음조로만 실현됨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개념과 원리는 각 성조 방언의 공식적 성조 체계 기술과 성조 현상의 분석뿐 아니라 성조 방언간의 체계 비교 등에도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성조 기술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3.2. 부정사 '아니/안'의 성조

2장에서, 울진 방언의 {안X}가 실현하는 음조형¹⁵⁾을 용언의 종류에 따라 제시했다. 이제 이 현상을 더 자세히 분석하여 이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밝혀 보는 일이 남았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부정사 '안'의 성조를 확정하는 일이다. 부정사 '안'은 중세 국어에서는 '아·니'(평거[LH])로만 나타난다.

(28) 보르·매 아니 :뭇·썩(용비어천가 1:1, 1)

15)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성조 규칙이 적용된 이후의 성조형을 '성조형'으로, 음조 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된 표면 성조형을 '음조형'으로 부를 것이다.

아니 :오라·라 명세(盟誓) ·흐시·니아·다(월인천강지곡 53)
 첫 아·니 ·나·늑·니(구급간이방 목록·권7)
 ·슬·희여 ·히·디 아·니 ·히·더라(소학언해 5 : 117)

‘아니’는 경북 방언에서도 ‘[LH]’로 실현되는데, 이는 중세 국어 성조형과의 대응 관계에 있어 예외적인 존재가 된다. 중세 국어의 ‘평거’형은 경상 방언의 음조형 ‘[HL]’과 대응하고, 경상도 방언의 ‘[LH]’는 중세 국어의 ‘평평’형과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 대응 관계는 허웅(1955)에서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널리 인정되어 오고 있는 원칙으로 올진 방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29) ㄱ. 중세 국어 ‘평거’형과 올진 방언 ‘[HL]’형
 하·눌-하늘[HL], 일·흙-이름([HL]), 어·름-어름[HL], 아·들-아들[HL], 나·라-나라([HL]), 머·리-머리([HL]), 고·기-고기([HL])
 ㄴ. 중세 국어 ‘평평’형과 올진 방언 ‘[LH]’형
 ㄱ·술-가을[LH], 나·모-나무[LH], 도·죽-도적[LH], 보·름-바람[LH], 스·랑-사랑[LH], 새·박-새복[LH], 얼·굴-얼굴[LH], 줌·성-짐승[LH]

이와 같은 대응 관계가 지켜지자면 ‘아니’는 중세 국어에서 ‘[LL]’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경북 방언에서 ‘[HL]’로 실현되든지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성조의 실현에 있어 중세 국어의 성조형과 가깝고 경상 방언과는 극적인 관계에 있는 함경 방언의 경우에도 이 ‘아니’는 ‘저고’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진 학석(1993 : 74)에서는 ‘아니’를 부사류에 포함시켜 성조형을 정리하고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부사들과는 달리 이 ‘아니’는 경북 방언의 음조형과 일치하는 ‘저고’로 기술하고 있다. 함경 방언에서 나머지 부사들은 대부분 그 음조형이 경북 방언과 다른데, 함경 방언과 올진 방언의 대응 관계는 김 차균(1997c)에서 수립된 바 있으므로 이들의 대응은 규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30) 전 학석(1993)의 '부사의 음조'(() 안은 경북 방언의 {음조형})
 높이[저고]([HL]), 벌써[저고]([HL]), 갑자기[저저고]([LHL])
 새로[고저]([HH/L]), 반가이[고저저]([HHL])

‘아니’의 음조형의 방언간 대응 관계에 있어 중세 국어와 함경 방언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이 두 방언과 경상 방언의 관계가 불규칙적인 것으로 보아 대응 관계의 불일치의 책임은 경상 방언 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밝히는 일은 더 깊은 고찰을 기다려야 하겠고, 현 상태에서는 ‘아니’의 성조가 이 방언에서 특별한 변화를 입은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중세 국어, 함경 방언과의 대응 관계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경북 방언에서 ‘아니’의 음조형 ‘[LH]’는 성조형 ‘/HH/’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공식적으로, 동일한 음조를 가진 어휘들은 역시 동일한 성조형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나은 설명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아니’의 성조형은 ‘[LH]’ 음조형을 가진 다른 어휘들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북 방언에서 그 음조형이 ‘[L₁HLⁿ]’인 어사는 성조형 ‘/H₂Lⁿ/’로부터 음조 규칙 (24)에 의해 도출된 것으로 본다. 2음절 체언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음조형 ‘[LH]’는 성조형 ‘/HH/’로부터 도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울진 방언의 보기들에서 뒷받침될 수 있다.

- (31) 꽃/H/ + 발/H/ → (꽃발/HH/) → 꽃발[LH]
 술/H/ + 집/H/ → (술집/HH/) → 술집[LH]
 창/H/ + 문/H/ → (창문/HH/) → 창문[LH]
 콩/H/ + 밭/H/ → (콩밭/HH/) → 콩밭[LH]

고조를 가진 두 일음절 명사가 합쳐져 ‘[LH]’조의 복합어가 형성되는데 이는 위 음조 규칙 (24)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LH]’조 2음절 명사들의 성조형도 동일하게 ‘/HH/’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이 문구로 잡고 그 음조형의 도출은 음조 규칙 (24)에 맡기는 것이 설명력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다.

(32) 가을/HH/[LH], 나무/HH/[LH], 바람/HH/[LH], 사랑/HH/[LH], 아침/HH/[LH], 얼굴/HH/[LH], 짐승/HH/[LH]

이들은 앞의 (29)ㄴ에서 보았듯이 중세 국어에서는 ‘평평’형과 대응하고 있다. 방언간 성조형의 대응에서 중세 국어의 평성은 경상 방언의 ‘고조’/H/에 대응하므로 이들의 성조형을 ‘/HH/’로 잡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음조형이 ‘[LH]’인 ‘아니’의 성조를 ‘/HH/’로 봐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따라서 ‘아니’/HH/의 축약형인 ‘안’의 성조는 당연히 ‘/H/’가 되어야 할 것이다.

3.3. 울진 방언 {안X}의 성조 현상

이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표면상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울진 방언 {안X}의 성조 현상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결론을 미리 말하면, 이 현상은 부정사 ‘안’과 용언이 연결되어 하나의 ‘성조 어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규칙적인 성조 현상이다.

먼저 모든 활용형에서 ‘안해[HL]’형이 나타나는 I 류 용언들의 경우를 성조 현상의 층위별로 나타내 보이면 다음과 같다.

(33) 안/H/ + 차고/LL/ → 안차고/HLL/ → 안차고[HL]
 안/H/ + 차더라/LLL/ → 안차더라/HLLL/ → 안차더라[HLLL]

(33)에서 활용형 ‘차고’와 ‘차더라’의 성조형(/LL/과 /LLL/)은 각각 어간 ‘차-/L/’와 어미 ‘-고/L/’ 및 ‘-더라/HL/’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34) ㄱ. 차-/L/ + -고/L/ → 차고/LL/[HH/LL]

ㄴ. 차-/L/ + -더라/H/ → 차더라/LL/[HHL]

(34)ㄴ에서 ‘차더라’의 최종 성조형 ‘/LL/’은 물론 성조 규칙 (23)ㄴ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음조형은 음조 규칙 (24)ㄴ에 의한 것이다. 어간의 기저 성조가 저조이기 때문에 뒤에 어떤 어미가 연결되더라도 그 활용형의 성조형은 ‘L₂’가 되는 것이다. 이 활용형 앞에 고조를 가진 ‘안’이 연결되어 한 ‘성조 어절’을 이룰 때 그 성조형이 ‘/HL₂/’이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즉 /H/와 /L₂/이 연결되어 /HL₂/이라는 최종 성조형이 되고 이 성조형이 그대로 음조형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 경우 ‘안해[HL]’형의 실현은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든 활용형에서 ‘안해[LH]’형이 나타나는 Ⅱ류 용언에 대해 살펴보자.

(35) 안/H/ + 잡고/H/ → 안잡고/HHL/ → 안잡고[LHL]
 안/H/ + 잡더라/HHL/ → 안잡더라/HHHL/ → 안잡더라[LLHL]
 안/H/ + 잡는겠다/HHL/ → 안잡는겠다/HHHL/ → 안잡는겠다[LLHL]

‘잡고’, ‘잡더라’, ‘잡는겠다’의 성조형은 (33)의 ‘차고’나 ‘차더라’와 같이, 기저에서 고조를 가진 어간 ‘잡-’에 각각의 어미가 연결되어 형성된 것이다. ‘H₁L’을 최종 성조형으로 가지는 ‘잡-’의 모든 활용형 앞에 고조를 가진 ‘안’이 연결되면 당연히 /H₂L₁/이라는 성조형을 이루게 되고, 이 성조형에 음조 규칙 (23)ㄴ이 적용되어 [L₁HL₁]이라는 표면형이 도출된 것이다.¹⁶⁾ 이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도출 과

16) 여기서 표면 음조형만을 중요시하여 ‘안’의 성조를 대구 방언은 저조로, 올진 방언은 ‘고조’로 잡을 경우 ‘안[H]+잡더라[LHL]’가 ‘안잡더라[LLHL]’로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성조 변동 규칙을 가정해야 하는데, 이 규칙은 적용되는 조건을 명세화하기가 어려워져서 일반성 있는 규칙이 되기 어렵다. 대구 방언의 경우에도 비슷한 종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이 문규

정이다. 따라서 ‘잡-’의 경우 모든 활용형에서 ‘안해’([LH])형만이 실현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활용형에 따라 ‘안해[LH]’형과 ‘안해[HL]’형이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Ⅲ류에 오면 이 현상의 본질은 여실히 드러난다. Ⅲ-1류와 Ⅲ-2류를 먼저 보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보듯이 Ⅲ류 용언들은 그 활용형에 따라 그 최종 성조형이 달라진다. (12)의 ‘가-’를 가지고 다시 살펴보자. 어간 ‘가-’는 그 활용형에 따라 그 음조형이 [HL₀]와 [HHL₀]형으로 나타난다. 이 음조형들이 위의 음조 규칙 (24)에 의해 도출되었다면, 이들은 각각 성조형 /HL₀/과 /L₁/에서 도출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어간 ‘가-’의 기저 성조를 고조로 잡을 것인가 저조로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어느 쪽을 기저형으로 잡더라도 다른 쪽을 도출해 내는 일반성 있는 성조 규칙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활용형에 따라 그 성조형이 달라지는, 일종의 불규칙 활용 용언인 셈이다. 여기서는 김 차균(1994: 258)에 따라 어미 ‘-다’ 앞에 직접 나타날 때의 어간 성조를 기저형으로 잡아 두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가머’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가더라’의 어간 성조는 어미 ‘-더라’ 앞에서 기저 고조가 저조로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가더라’의 최종 성조형은 /LLL/이 되고 이는 다시 음조 규칙 (24)의 적용을 받아 [HHL]로 실현되는 것이다.

- (36) ㄱ. 가-/H/ + -머/L/ → 가머/HL/[HL]
 ㄴ. 가-/H/ + -더라/HL/ → 가더라/LLL/[HHL]

이와 같은 어간 성조 변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나¹⁷⁾ 여기서는 더 이상의 고찰을 하지 않기로 한다.

17) 김 차균(1994: 267~268)에서는 용언 어간 성조 변동의 원인이 어미에 있을 것으로 보고, 어미의 종류를 어간의 성조를 변화시키는 것과 그렇지

‘서다’와 같은 Ⅲ-2류에서는 어간 성조가 ‘고조’를 유지하는 활용형과 ‘저조’로 바뀌는 활용형의 목록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으로는 Ⅲ-1류와 동일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제 부정사 ‘안’이 Ⅲ-1, 2류 용언에 연결된 형태 즉 {안X}의 성조 현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 (37) ㄱ. 안/H/ + 가머/HL/ → 안가머/HHL/ → 안가머[LHL]
 안/H/ + 가이꺼네/HLLL/ → 안가이꺼네/HHLLL/ → 안가이
 꺼네[LHLLL]
 안/H/ + 가더라/LLL/ → 안가더라/HLLL/ → 안가더라[HLLL]
 안/H/ + 갔는겠다/LLLL/ → 안갔는겠다/HLLLL/ → 안갔는
 겠다[HLLLL]
 ㄴ. 안/H/ + 서고/HL/ → 안서고/HHL/ → 안서고[LHL]
 안/H/ + 서더라/HHL/ → 안서더라/HHHL/ → 안서더라[LLHL]
 안/H/ + 서는겠다/HHHL/ → 안서는겠다/HHHLL/ → 안서는
 겠다[LLHLL]
 안/H/ + 섰는겠다/LLLL/ → 안섰는겠다/HLLLL/ → 안섰는
 겠다[HLLLL]

‘안’ 다음에 ‘가머’나 ‘가이꺼내’와 같은 /HL/형이 오면 /H²L/ 성조형을 이루고 이것은 다시 음조 규칙 (24)ㄷ의 적용을 받아 [LHL]을 도출하므로 표면 음조형은 ‘안해[LH]’형이 된다. 반면 ‘안’ 다음에 ‘가더라’나 ‘갔는겠다’와 같은 /L/형이 오면 (33)의 I류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안해[HL]’형이 실현된다. Ⅲ류에 있어 이 두 성조형의 실현은 ‘안가더라[HLLL] : 안서더라[LLHL]’와 ‘안섰는겠다[HLLLL] : 안서는겠다[LLHLL]’에서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이상 I, II, Ⅲ-1, 2류에 대한 고찰에서 우리는 올진 방언의 {안X}의 성조형이, 성조 /H/를 가진 ‘안’에 /L/이 연결되느냐 /H/가 연결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자연스럽고 규칙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

않는 것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다. 즉 ‘안’에 /L/로 시작하는 성조형이 연결되면 ‘안해[HL]’형이 도출되고, /H/로 시작하는 성조형이 연결되면 ‘안해[LH]’형이 도출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Ⅲ-3류에 대해 살펴보자. 앞에서 검토했듯이 Ⅲ-3류는 일부 활용형은 Ⅲ-1류와 비슷하나 나머지 활용형이 고장조를 제1음절 성조로 가지는 용언들을 말한다. (16)의 ‘하다’를 예로 들어 보면 어간 ‘하’의 기저 성조는 어미 ‘다’에 연결될 때의 성조를 기저 성조로 잡을 때, 고조가 된다. 이 고조는 연결되는 어미에 따라 저조로 바뀌기도 하고 고장조로 바뀌기도 한다.

- (38) ㄱ. 하/H/ + 고/L/ → 하고/HL/[HL]
 ㄴ. 하/H/ + 더라/HL/ → 하더라/LLL/[HHL]
 ㄷ. 하/H/ + 었/L/ + 어요/LL/ → 했어요/HLL/[HLL]

위에서 ‘하고’와 ‘하더라’는 ‘가다’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이고, ㄷ에서는 제1음절의 성조가 어미 ‘-었어요’ 앞에서 고장조로 바뀐 것을 보여 준다. 부정사 ‘안’이 ‘하고’나 ‘하더라’와 연결되면 ‘가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활용형에 따라 각각 ‘안해’[LH]형과 ‘안해’[HL]형으로 실현된다.

- (39) ㄱ. 안/H/ + 하고/HL/ → 안하고/HHL/ → 안하고[LHL]
 안/H/ + 하나/HL/ → 안하나/HHL/ → 안하나[LHL](<선택>)
 ㄴ. 안/H/ + 하나/LL/ → 안하나/HLL/ → 안하나[HLL](<의문>)
 안/H/ + 하더라/LLL/ → 안하더라/HLLL/ → 안하더라[HLLL]

‘안+했어요’가 ‘안해[HL]’형으로 실현되는 것은 제2음절 이하에서 /H/를 /L/로 바꾸는 성조 규칙 (26)ㄱ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 (40) 안/H/ + 해:서/HHL/ → 안#해:서/H#HL/ → 안해서/HLL/ → 안해서[HLL]

한글 238('97. 12.)

안/H/ + 했:어요/HLL/ → 안#했:어요/H#HLL/ → 안했어요/HLLL/
→ 안했어요[HLLL]

한 단계의 과정을 더 거치긴 했지만 이 역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을 알 수 있다. 늘 고장조형으로 실현되는 IV류 용언들에 대한 설명도 (40)과 같다.

(41) 안/H/ + 곱:고/HLL/ → 안#곱:고/H#HLL/ → 안곱고/HLL/ → 안곱
고[HLL]
/안/H/ + 고:봤다/HLL/ → 안고:봤다/H#HLL/ → 안고봤다/HLLL/
→ 안고봤다[HLLL]

다음으로 어간 첫 음절의 고장조가 일부 활용형에서 고조로 변동하는 용언들도, 어간의 기저 성조는 고장조이고 일부 활용형((42)의 ㄴ)에서 고조로 바뀌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42) ㄱ. 덩/H/ + 고/L/ → 덩고/HLL/[HL]
ㄴ. 덩/H/ + 어서/LL/ → 더버서/HLL/[HLL]

역시 부정사 '안'이 연결되면 고장조는 고조 다음에서 저조로 중화되므로, '안덩고'는 '/H/+/HLL/→/HLL/'가 되어 '[HLL]'로 실현되나, '안더버서'는 그대로 '/H/+/HLL/→/HHLL/'가 되어 음조 규칙에 의해 '[LHLL]'로 실현된다.

(43) ㄱ. 안/H/ + 덩:고/HLL/ → 안#덩:고/H#HLL/ → 안덩고/HLL/ →
안덩고[HLL]
ㄴ. 안/H/ + 더버서/HLL/ → 안더버서/HHLL/ → 안더버서[LHLL]

이상에서 올진 방언의 {안X}의 성조형이 고조(H/)를 가진 부정사 '안' 다음에 연결되는 어간의 성조형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안' 다음에 고조가 연결되면 음조 규칙의 적용을 받아 '안해[LH]'형으로 실현되고, '안' 다음에 저조나 고장조가 연결되

면 그대로 ‘안해[HL]’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우¹⁸⁾ 지켜지는 매우 규칙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¹⁹⁾

4. 대구 방언의 ‘고조화’ 규칙

울진 방언에 있어 {안X}의 음조 실현을 매우 규칙적인 현상으로 본다면, 대구 방언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앞에서도 말했듯이, 대구 방언에서는 용언의 종류나 활용형에 관계없이 ‘안해[LH]’형만 나타난다. 이 때,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은 ‘안’ 다음에 저조나 상승조 활용형이 오는 경우이다.

앞에서 살펴본 Ⅲ-3류를 가지고 살펴보자. Ⅲ-3류는 활용형에 따라 세 가지 종류의 성조형을 가지는 용언들이다. 울진 방언과는 달리 대구 방언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성조형에 관계없이 ‘안해[LH]’형만이 실현된다.

- (44) ㄱ. 안/H/ + 하고/HL/ → 안하고[HLH]
 ㄴ. 안/H/ + 하더라/LLL/ → 안하더라[LLHL]
 ㄷ. 안/H/ + 했:어요/R³/ → 안#했:어요/H#L:LL/ → 안했:어요[LLHL]

18)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극히 일부에서 예외적인 현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Ⅲ류 용언 어간이 어미 ‘-니더, -디더, -니껴?, -디껴?’ 등을 취할 경우, ‘안’에 저조가 연결될 때 ‘안해[HL]’형과 ‘안해[LH]’형이 함께 실현된다. 필자의 관찰로는 이 경우 ‘안해[LH]’형이 더 자연스럽게 들렸다. 이 예외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현재로는 어렵다. 아래 각주 26) 참조.

19) 이 논문에서는 일음절 어간 용언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다음절 어간 용언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안/H/ + 가랜다/HHL/(分) → 안가랜다/H³L/[LLHL]
 안/H/ + 부끄러웠다/HHHL/ → 안부끄러웠다/H³L²/[LLHLL]
 안/H/ + 기리고/LLL/(讚) → 안기리고/HL³/[HLLL]
 안/H/ + 개롭히디더/LLLL/(讚) → 안개롭히디더/HL⁵/[HLLLLL]

(44)의 ㄱ은 '/H+/HL/'이 '/HHL/'을 이루고 이것이 위 음조 규칙 (24)ㄷ에 의해 '[LHL]'로 실현되므로 다른 문제가 없다. ㄴ은 '/H+/LLL/→/HLLL/[HLLL]'이 되어야 하고, ㄷ은 '/H+/R³/'이 중화 규칙 (26)ㄱ에 의해 '/HLLL/'로 되어 '[HLLL]'로 실현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LLHL]'로 실현된다는 것은 용언의 활용형에 부정사 '안'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성조형에 변동이 일어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 (45) ㄱ. 안/H/ + 하더라/LLL/→ 안하더라(/ ? /)[LLHL]
 ㄷ. 안/H/ + 했:어요/R³/→ 안#했:어요/H#L:LL/→ 안했:어요(/ ? /)
 [LLHL]

음조형 '[LLHL]'은 성조형 '/HHHL/'로부터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안'과 '하더라'의 연결체인 '안하더라'의 성조형이 '/HLLL/'에서 '/HHHL/'로 바뀐 것으로 보지 않고는 음조 실현을 정상적으로 설명해 낼 도리가 없다.

여기서 성조 중화 규칙에 대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조형의 연결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조의 변동은 대개 위 중화 규칙 (26)에 의해 설명되는 '저조화'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저조화 중화 규칙이 적용되어야 할 환경에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의 변화를 겪는 예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

- (46) ㄱ. 개/R/ + 구멍/HH/ → 개구멍/HHH/[LLH]
 ㄴ. 고기/HL/ + 잡이/HL/ → 고기잡이/HHHL/[LLHL]
 ㄷ. 손/L/ + 등/H/ → 손등/HH/[LH]

(46)ㄱ의 '개구멍'은 저조화 중화 규칙 (26)ㄴ에 의해 '/R+/HH/→/R³/'로 되고 이는 음조 규칙 (24)ㄱ에 의해 [RHL]로 실현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대구 방언에서 '개구멍'은 [LLH]으로 실현되는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이 문규

데, (24)ㄷ에 의하면 이 음조형을 도출시키기 위하여서는 성조형이 '/HHH/'라야 한다. 따라서 (46)ㄱ의 경우 복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개'의 성조가 고조로 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ㄴ에서는 '고기'의 제2음절이, ㄷ에서는 '손'이 각각 고조로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

이 문규(1997: 24)에서는 이와 같은 고조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²⁰⁾ 김 차균(1979: 46)의 '경남 방언의 평성 동화 규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고조화 규칙을 설정한 바 있다.

(47) 경북방언의 고조화 규칙

$$\left[\begin{array}{c} R_i^{(21)} \\ L_i \\ H^m L_i \end{array} \right] + H_i L^n \rightarrow H_i L^n$$

고조화 규칙 (47)은 저조화 중화 규칙 (26)과 함께, 성조형이 연결될 때 나타나는 제약을 설명해 주는 성조 규칙을 이룬다. 그런데 형태소가 연결되면서 일어나는 고조화 중에는 규칙 (47)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일음절 저조 명사가 처소격 조사 '-에' 앞에 오는 경우이다.

(48) 발/L/ + 에/L/ → 발에/HL/[HL](*/LL/[HH/LL])
 물/L/ + 에/L/ → 물에/HL/[HL](*/LL/[HH/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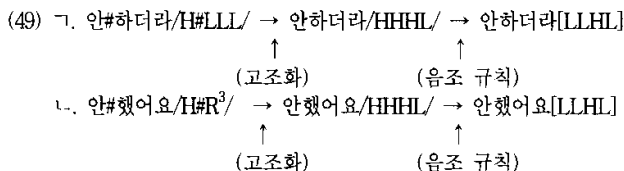
(48)에서 일음절 저조 명사인 '발'이나 '물'이, 역시 저조인 조사 '-에'에 연결되어 '[HH/LL]'이 아닌 '[HL]'로 실현된다는 것은 그 연결 과정에서 '발'과 '물'의 성조가 고조로 변했기 때문인데, 이는 위 고

20) 이 문규(1997)에서는 대구 방언을 자료로, 하나의 성조 어절이 형성될 때 나타나는 '저조화'와 '고조화'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21) 이 문규(1997)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상성형에 대응하는 대구 방언의 성조소를 저장조로 잡았으나, 여기서는 상승조로 기술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밝힌 바 있다.

조화 규칙 (47)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부분의 일음절 저조 명사에서 나타나지만 그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든 (48)과 같은 현상은 규칙 (47)과는 별개의 제약에 의해 일어나는 고조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성조 규칙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인 대구 방언의 {안X}로 돌아가기로 한다. (45)에 대한 설명에서, '안하더라'와 '안했어요'가 '[LLHL]'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그 성조형은 '/HHHL/'일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48)과 같은 불규칙적인 고조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즉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정하는 것이다.



다음 자료를 보면 이 {안X}에서 '고조화'의 영역이 매우 넓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0) 안차	/H\#L/ → /HH/ → [LH]
안차고	/H\#LL/ → /HHL/ → [LHL]
안차더라	/H\#LLL/ → /HHHL/ → [LLHL]
안찻는갑다	/H\#LLLL/ → /HHHHL/ → [LLLHL]
안찻는갑습니더	/H\#LLLLLL/ → /HHHHHHHL/ → [LLLLLHL]

즉 {안X}형에서는 말음절을 제외한 어미의 나머지 음절 모두가 고조화되고 있는 것이다.²²⁾ 이러한 양상은 기저 성조가 고조이거나

22) 단, '안찻는갑다'나 '안찻는갑습니더'는 각각 '/HHHL/[LLHL]', '/HHHL LLL/[LLHLLL]'로 실현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앞의 두 음절까지만 고조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이 문규

상승조로 시작되는 활용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 (51) 안잡고 /H#HL/ → /HHL/[LHL]
 안잡더라 /H#HHL/ → /HHHL/[LLHL]
 안잡더라도 /H#HHLL/ → [HHHHL]/[LLLHL]²³⁾
 안잡는갑다 /H#HHLL/ → /HHHHL/[LLLHL]
 (/H#HHLL/[LLHLL])
 안잡는갑습니더 /H#HHLLLL/ → /HHHHHHL/[LLLLLHL]
 (/H#HHLLLL/ → [LLHLLL])
 안잡았는갑습니더 /H#HLLLLLL/ → /HHHHHHHL/ → [LLLL
 LLHL]
 (52) 안울고 /H#R²/ → /HHL/[LHL]²⁴⁾
 안올더라 /H#R³/ → /HHHL/[LLHL]
 안올더라도 /H#R⁴/ → /HHHHL/[LLLHL]
 안우는갑습니더 /H#R⁶/ → /HHHHHHL/[LLLLLHL]
 안올렸는갑습니더 /H#R⁷/ → /HHHHHHHL/[LLLLLHL]

한편 올진 방언을 비롯해 ‘안해[HL]’형이 실현되는 방언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로 대구와 같이 ‘안해[LH]’형이 실현되는 지역에서는 이 현상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 (53) ㄱ. 안잡는겠다 /H#HHLL/ → /HHHLL/[LLHLL](울진)
 안잡는갑다 /H#HHLL/ → /HHHLL/[LLHLL](영양)
 안잡는갑다 /H#HHLL/ → /HHHHL/[LLLHL](대구)
 ㄴ. 안잡으이끄네 /H#HLLLL/ → /HHLLLL/[LHLLLL](울진)

화된 것이다. 여기서는 고조화의 최대 영역에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런 차이는 일단 무시하기로 한다.

23) 이 경우에도 고조화의 영역이 화자나 하위 방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안잡더라도’가 ‘/HHHLL/[LLHLL]’로, ‘안잡는갑다’가 ‘/HHHLL/[LLHLL]’로, ‘안잡는갑습니더’가 ‘/HHHLLLL/[LLHLLL]’로 실현되기도 한다.

24) 여기서 ‘/H#R²/’이 바로 ‘/HHL/’로 된다고보다는 지조화 중화 규칙에 의해 ‘/HL²/’로 되었다가 다시 고조화 규칙에 의해 ‘/HHL/’로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52)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하였다.

안잡이게	/H#HLLL/ → /HHLLL/[LHLLL](영양)
안잡이끄내	/H#HLLLL/ → /HHHHHL/[LLLLHL](대구)
ㄷ. 안잡아먹체	/H#HL#HL/ → /HHLLL/[LHLLL](영양, 영주)
안잡아묵체	/H#HL#HL/ → /HHHHL/[LLLHL](대구)
ㄹ. 안갸다준다	/H#HL#LL/ → /HHLLL/[LHLLL](영양, 영주)
안갸다준다	/H#HL#LL/ → /HHHHL/[LLLHL](대구)
ㄱ. 안맞아죽는다	/H#HL#HHL/ → /HHLLLL/[LHLLLL](영양, 영주)
안맞아죽는다	/H#HL#HHL/ → /HHHHHL/[LLLLHL](대구)
ㄴ. 안잡았는모애시더	/H#HLL#HLLL/ → /HHLLLLL/[LHLLLLLL](영양, 영주)
안잡았는모애입니다	/H#HLL#HLLLL/ → /HHHHHHHHL/[LLLLLHL](대구)

이상의 검토로 보아 대구 방언 등에서 ‘안해[LH]’형이 실현되는 것이 “부정사 ‘안’ 다음의 용언 고조화”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현상은 어간의 성조형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종의 성조 중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즉 부정사 ‘안’ 다음에서는 모든 성조가 중화되는 것이다.

{안X}와 ‘일음절 거성형 명사+에’의 성조 현상은 그 방향이 ‘고조화’라는 점에서 (46)과 같지만 그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47)의 규칙에 포함시켜 설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듯하며, 오히려 특별한 형태들에서만 나타나는 고조화 현상인 것으로 보아 현재로서는 각각 독립적인 성조 규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방언 {안X}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54) ㄱ. 부정사 ‘안’(/H/) 다음에서는 마지막 음절을 제외²⁵⁾ 모든 음절의 성조가 고조로 바뀐다.

25) 용언의 활용형이 일음절일 때에는 그 자체가 첫 음절이자 마지막 음절이므로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 ‘안해’/HH/[LH], ‘안가’/HH/[LH]

경북 방언 {안+용언}의 성조 현상: 이 문규

ㄴ. {안+용언}의 성조형은 'H₂(L)'로 중화된다.

{안X}의 고조화(혹은 중화) 현상에 대해서는 다른 환경에 나타나 는 고조화 현상과 함께 좀더 정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각주 (22)와 (23)에서 밝혔듯이 {안X}의 고조화의 영역은 하위 방언 에 따라 혹은 화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위 (45)는 고조화의 영역을 최대로 잡았을 때를 규칙화한 것이다.²⁶⁾

5. 맺음말

이 논문은 경북 방언에서 '안+용언'의 성조가 두 유형으로 실현됨 을 주목하고 그 본질을 밝혀 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자료를 검토하 고 이를 분석한 결과, 울진 방언 등 '안해[HL]'형이 실현되는 방언에 서는 성조형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음조형으로 실현되는 데 반해 대구 방언 등에서는 '안' 다음에서 용언의 성조가 고조화됨으로써 '안해[HL]'형이 실현된다는 사실을 밝혀 내었다.

이 현상의 분석에서 우리는, 성조 현상의 층위를 셋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에 의해 경북 방언 '안+용언' 의 성조 현상이 명쾌하게 설명될 수 있었다는 것은, 역으로 이러한 방법론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표면 성조형 즉 음조형만을 고려했다면 이 현상의 기저에 있는 원리를 발견해 내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안+용언}의 성조 현상은 경북 방언을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 항목이 될 수 있을 것²⁷⁾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26) 한편 앞의 주 18)에서 밝혔던 울진 방언의 예외례들에 대해서는, 이 방언 에서도 위 고조화 규칙이 일부 활용형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으로 설명할 가능성을 제기해 둔다.

27) 경북 방언의 하위 방언 구획에 관한 연구에서 이 현상을 기준으로 삼은

앞으로 이 현상이 하위 방언별로 실현되는 양상을 더 정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 현상과 중요한 관계를 가지는 '고조화'에 대해서도 더 상세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 문헌〉

- 김 성환. 1990. 〈경북 방언 성조에 관한 연구—경북 경산 지역어를 중심으로—〉, 계명대 박사학위 논문.
- 김 성환. 1991. 〈경북 방언 성조의 음성학적 고찰〉, 들메 서 재극 박사 환갑 기념 논문집.
- 김 영만. 1972. 〈고급 성조 비교 재론〉, 한글 149. 한글 학회.
- 김 영만. 1986. 〈국어 초분절음소의 사적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 김 영만. 1992. 〈운소론〉, 국어학 연구 백년사(고 영근 외 편). 일조각.
- 김 완진. 1977. 〈중세 국어 성조의 연구〉. 탑 출판사.
- 김 주원. 1991ㄱ. 〈경상도 방언의 고조의 본질과 중세국어 성조와의 대응에 대하여〉, 언어학 13. 한국 언어학회.
- 김 주원. 1991ㄴ.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 방법〉, 어학 연구 27-3. 서울대 어학연구소.
- 김 주원. 1994. 〈성조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인문과학 10.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 주원. 1995. 〈중세국어 성조와 경상도 방언 성조의 비교 연구 —「뫓노곤 소리」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언어 20-2. 한국 언어학회.
- 김 차균. 1977. 〈어절 성조 체계의 기술 방법〉, 언어학 2. 한국 언어학회.
- 김 차균. 1985. 〈중세 국어와 경상도 방언의 성조 대응 관계 기술의 방법〉, 역사언어학(김 방한 선생 회갑 기념 논문집). 전예원.
- 김 차균. 1988. 〈훈민정음의 성조〉, 훈민정음의 이해(전남대 어연 총서 1). 한신 문화사.
- 김 차균. 1993ㄱ. 〈방점법〉, 언어학 15. 한국 언어학회.
- 김 차균. 1993ㄴ. 〈창원 방언과 대구 방언 성조의 비교 분석〉, 논문집 20-2.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 차균. 1993ㄷ. 〈북청 방언과 대구 방언 성조의 비교 분석〉, 언어 20. 충

것에는 김 성환(1991)이 있다.

남대 어학연구소.

- 김 차균. 1994ㄱ. <통시성조론>, 현대 언어학 지금 어디로. 한신 문화사.
- 김 차균. 1994ㄴ. <대구 방언 풀이씨의 성조>, 논문집 2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 김 차균. 1994ㄷ. <겨레말 방언 성조론>, 부산 한글 13. 부산 한글학회.
- 김 차균. 1994ㄹ. <대구 방언 성조 체계의 변천>, 언어 15. 충남대 어학연구소.
- 김 차균. 1997ㄱ. <육진 방언과 창원 방언 성조의 비교 (1)>, 한글 235. 한글 학회.
- 김 차균. 1997ㄴ. <육진 방언과 창원 방언 성조의 비교 (2)>, 한글 236. 한글 학회.
- 김 차균. 1997ㄷ. <룡정 방언과 울진 방언 성조의 비교>, 언어학 20. 한국 언어학회.
- 이 기문 외. 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 논문집(인문 사회 과학편) 30.
- 이 동화. 1986. <동남방언 성조의 연구와 검토>, 영남 어문학 13. 영남 어 문학회.
- 이 동화. 1990. <경북 방언 성조의 자립분절 음운론적 연구>, 영남대 박사 학위 논문.
- 이 문규. 1997. <대구 방언의 성조 중화 현상>, 문학과 언어 18. 문학과 언어 연구회.
- 전 학석. 1993. <함경도 방언의 음조에 대한 연구>, 태학사.
- 정 원수. 1995. <경북 방언 파생명사의 성조에 대한 국어사적 고찰>, 어문 연구 26. 어문 연구회.
- 허 응. 195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최 현배 선생 회갑 기념 논문집.
- 허 응. 1955. <방점 연구>, 동방학지 2. 연세대 동방학연구소.
- 허 응. 1985. <국어 음운학>. 샘 문화사.
- Ramsey, S. R. 1974. <함경·경상 양방언의 액센트 연구>, 국어학 2. 국어 학회.
- 大江孝男. 1978. <Negative Adverbs in Southern Dialects from an Accental point of View>, *Papers in Korean Linguistics*(Kim Chin-W. ed.) 17.

<이 문규 : 경북대 강사, 국어학>

